

투퀴디데스의 『역사』에 나타난 아테나이의 초상:

시칠리아 원정에서의 마지막 전투 서사를

중심으로(7.54-87)

장시은*

【요약】

이 논문은 투퀴디데스 『역사』 6-7권의 시칠리아 원정 서사의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서술방식을,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디오도로스 시쿨로스의 『세계사 *Bibliotheca Historica*』 13권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다. 디오도로스는 에포로스를 전거로 삼아 시칠리아 원정을 간략하게 서술하며 사건의 전달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투퀴디데스는 사건들만을 전달하고자 하지 않고, 극적인 장면 묘사와 그가 역사적 사건들의 서사 안에 짜 넣은 연설들을 통해 아테나이의 초상을 그려낸다. 그는 아테나이 장군 니키아스의 입을 통해 시칠리아에 와 있는 아테나이 군이 곧 아테나이 그 자체라고 언명한다. 뿐만 아니라 투퀴디데스는 시칠리아 동부 쉬라쿠사이의 항구에서 벌어진 전투 장면을 서술하며 ‘옳겨진 폴리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먼저 제국적 욕망을 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뻗어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막다른 좁은 지역에 갇혀버린 아테나이를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로, 마지막 전투 장면 속에서 ‘머리를 잃은 아테나이 데모스’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앗시나로스 강가에서의 장면은 아테나이의 몰락을 예고해준다. 투퀴디데스는 직접적인 언명이 아닌, 시칠리아 원정 서사의 비극적 장면 구성을 통해서 통제 불능의 아테나이 민주정체에 대해 비판을 내리고 있다.

【주제어】 시칠리아 원정, 아테나이, 데모스, 민주정체(데모크라티아), 비극적 서사 구조.

*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I. 들어가는 글

투퀴디데스 『역사』 6·7권은 아테나이의 시칠리아 원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7권 후반부는 시칠리아 원정의 마지막 사건들, 즉 쉬라쿠사이 대항구에 서의 전투와 아테나이 군의 퇴각, 그리고 원정대의 시칠리아에서의 최후의 순간들을 그리고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이후 아테나이의 몰락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칠리아 원정의 참패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서술은 그 비극적인 장면 구성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은 학자들에게 큰 관심이 되어 왔는데, 그 연구는 크게 역사적인 연구와 문학적인 연구로 나뉜다.¹⁾ 그 중, 이 시칠리아

-
- 1) 역사적인 연구와 관련해서는 A. W. Gomme, A. Andrewes, K. J. Dover, *A Historical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IV(Oxford, 1970) (=HCT IV); Donald Kagan, *The Peace of Nicias And the Sicilian Expedition*(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V. D. Hanson, *A War Like No Other*(Viking, 2005); Peter Green, *Armada from Athens*(Doubleday, 1970)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실제 무엇이 일어났는가?’ 뿐만 아니라 그 일어난 일들을 역사가가 어떤 관점과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Jacqueline de Romilly, *Histoire et Raison chez Thucydide*(Les Belles Lettres, 1956)가 있다. 로밀리의 뒤를 이어 W. R. Connor, “a Post-Modernist Thucydides?”, *Classical Journal* 72 (1977), 289-98; K. J. Dover, “Thucydides ‘as History’ and ‘as Literature’.” *History and Theory* 22(1983), 54-53; C. W. Macleod, “Thucydides and Tragedy”, in *Collected Essays*(Oxford University Press, 1982) 140-158; S. Hornblower, *A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III(Cambridge, 2010) 등도 투퀴디데스의 서술 구조의 분석, 비극과 서사시 등과 같은 다른 문학 장르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M. Cogan, *The Human Thing: The Speeches and Principles of Thucydides’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H. P. Stahl, “Speeches and Course of Events in Books Six and Seven of Thucydides”, in P. Stadter ed.(1983), *The Speeches in Thucydides: A Collection of Original Studies with a Bibliography*, Chapel Hill은 특히 『역사』의 연설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Tim Rood, *Thucydides: Narrative and Explanation* (Oxford, 1998)는 서사학을 도입하여 연설들 보다는 내러티브에 관심을 기울이며 『역사』를 작품 내적으로 해석하려 시

원정 서사에 대해서는 문학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원정 서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주제적인 특성이 바로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칠리아 원정 서사는 작품 전체로부터 따로 떼어 놓아도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결된 구조로 기술되어 있다.²⁾

시칠리아 원정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사건이기에 이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서술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가장 축약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³⁾ 그렇기에 투퀴디데스가 『역사』를 서술하면서 의도했던 바, 그리고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한 바 역시 이 시칠리아 원정 서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는 투퀴디데스가 시칠리아 원정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후대의 역사가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디오도로스 시쿨로스의 『세계사 *Bibliotheca Historica*』와의 비교를 통해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가 독자들에게 이 서술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보도록 하겠다.⁴⁾

도하였다.

2) Hornblower(2010), 12-35에서는 이 7권이 일반적인 전사(戰史)의 일부라기보다는 독립된 문학작품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낭독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시칠리아 서사 안에서도 쉬라쿠사이에서의 전투 장면과 후퇴 장면은 또 하나의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de Romilly(1956), 154-160.

3) John T. Kirby, ‘Narrative Structure and Technique in Thucydides VI-VII’, *Classical Antiquity* 2.2(1983), 185.

4) 디오도로스 시쿨로스(Diodoros Siculos)는 최초의 보편사를 쓴 역사가이다. 총 40권의 방대한 양 중에서 1-5권과 11-20권만이 전승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책은 13권이다. 그는 자신의 책의 제목을 *bibliotheca historica*, 즉 ‘역사적 도서관’이라고 붙였는데, 그것은 그가 다양한 사료들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후, *bibliotheca historica*는 편의상 『세계사』로 표기하겠다.

지금까지 투퀴디데스의 『역사』와 비극과의 비교는 많이 있어왔지만, 디오도로스와와의 본격적인 비교는 시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디오도로스의 『세계사』가 투퀴디데스의 『역사』보다 한참 후대의 작품이며 역사서로서의 엄밀성과 객관성, 또 문학성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칠리아 원정 서사에 대한 다른 입장과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료라는 점에서 『세계사』를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은 유실되어 단편으로만 전해지는 다른 역사가들, 특히 필리스토스와 에포로스, 티마이오스 등을 그가 참고했다는 점에서도 디오도로스 시쿨로스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또 투퀴디데스와 비교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⁵⁾

두 역사가가 시칠리아 원정 최후의 순간들을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는지는 각기 작품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디오도로스의 서술과 비교를 해보면 투퀴디데스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간략하게 언급만 하는지, 또 어떤 사건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지가

5) 디오도로스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는, “디오도로스가 투퀴디데스가 아닌 에포로스 혹은 티마이오스였으며, 그가 그들의 역사서를 가져다, 자신의 비판적인 안목을 더하지 않고, 단순히 축약하고 있다”고 밝히며, 디오도로스의 『세계사』와 투퀴디데스의 『역사』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저본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전체의 구조나 취지, 그리고 디테일의 차이와, 두 작품의 수준의 차이를 들고 있다. 심사자의 지적대로, 디오도로스의 『세계사』를 투퀴디데스의 『역사』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작업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디오도로스 『세계사』 자체의 가치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선배들의 작품을 비판적 검토 없이 축약했다는 점이 바로 이 논문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디오도로스의 축약된 사건 서술을 통해 고대인들이 시칠리아 원정 사건의 간략한 개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퀴디데스의 서술과 대조하여 어떤 내용들을 가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투퀴디데스의 서술의 특징과 강조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비교는 투퀴디데스의 서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리라 기대한다. 디오도로스가 투퀴디데스 외에 어떤 사료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투퀴디데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지금은 유실된 다른 역사가들의 단편들의 문헌고증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시도할 것을 약속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두 역사가의 시칠리아 원정 서술의 비교만을 하도록 하겠다.

더 명확히 나타난다. 투퀴디데스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많은 연설문과 관련해서도 두 역사가의 비교는 중요하다. 디오도로스의 『세계사』에도 투퀴디데스와 마찬가지로 긴 연설문들이 들어있는데, 투퀴디데스에 수록된 연설들은 디오도로스에서 언급만 되기도 하고, 투퀴디데스에는 없는 연설들이 디오도로스에 길게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 이 연설문들의 비교를 통해 투퀴디데스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디오도로스와의 비교를 통해 부각되는 『역사』의 서술적 구조와 특성에 주목하여 7권 후반의 마지막 전투와 후퇴 장면의 서술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특히 ‘데모스’에 대해 드러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투퀴디데스가 시칠리아 원정 서사에서 그려내고 있는 아테나이의 초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고, 그가 이 초상을 통해 아테나이 민주정체의 한계, 곧 아테나이의 과도한 탐욕과, 강력한 지도자가 없이 데모스가 곧 폴리스가 되어버린 아테나이 상황을 비판하는 한편, 아테나이의 민주체제가 몰락할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이 시도하고자 하는 바이다.

II. 폴리스 그 자체인 데모스 (Thuc. 7. 54-69)

마지막 전투를 앞둔 양 군의 상황을 묘사하며 서술은 시작된다. 앞서 행해졌던 몇 차례의 전투에서의 승리로 쉬라쿠사이의 사기가 올라있고, 반대로 아테나이는 자신들이 자신 있던 해전에서 연거푸 패함으로 크게 낙담해 있다. 디오도로스는 양 군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서술한다.⁶⁾ 그는 쉬라쿠사이인들이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행동을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을

6) 디오도로스는 이 마지막 전투 장면을 다룬 13권 14장에서 지각과 관련된 동사의 사용 빈도수는 매우 적다.

알려준다. 반면, 투퀴디데스는 이어지는 사건들을 바로 전달하지 않고 내러티브의 속도를 늦춘다. 내러티브 화자는 멈추어 서서 양 군의 감정 상태와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어떤 판단으로 전투를 준비하는지의 과정들을 추적해간다. ‘아테나이인들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고, … 후회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기가 꺾였다. … 판단했고, … 생각했다’.

투퀴디데스는 지각과 관련한 동사들, 분사를 이용한 이유절과 가정법 문장들을 주로 사용하여 전투 직전의 상황을 설명한다. 투퀴디데스가 이렇게 사건들보다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두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연설들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디오도로스는 양 군대가 전투 준비를 마치자 아테나이 장군 니키아스가 배에 올라 정렬해 있는 배들을 지나며 선조들의 위업에 수치를 입히지 말고 자신들과 그들의 선조, 그리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한 후 해안의 자신이 있어야할 위치로 돌아갔다고 간략하게 서술한다.⁷⁾ 디오도로스가 간접 인용으로 전하고 있는 이 니키아스의 연설과 거의 유사한 연설이 투퀴디데스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그 연설에 앞서 디오도로스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 두 개의 더 긴 연설들을 들려준다.

디오도로스가 해안에서의 전투 준비 상황을 설명한 이후, 곧바로 승선한 군인들과 바다 위에 정렬한 삼단노선들을 돌아다니며 격려하는 니키아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투퀴디데스는 이번에도 서술 속도를 늦춰, 아직 승선

7) Diod. 13.15.1-2 ‘그리고 바로 이 때, 아테네의 니키아스는 배들을 점검하고, 위험의 크기를 추정하고서, 자신의 위치인 해안을 뒤로하고서 배에 타고 아테나이의 삼단 노선들 사이로 향해해갔다. 그는 선장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을 굳게 잡으라고 간청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조국의 안전이 걸려 있는 이 해전에서의 성패는 용기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인 자들에게는 아이들을 기억하라고 하고, 유명한 아버지들을 둔 아들들에게는, 조상의 위업에 수치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영예를 가지고 있는 데모스 출신들에게는 그 자신이 데모스의 자랑이 되라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그 마음에 살라미스의 승전비를 마음에 두고 자신들을 쉬라쿠사이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격려했다.’

전인 아테나이 군에게 니키아스가 한 연설을 소개한다.

“아테나이인과 동맹군 전사 여러분, 이번 전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전시오. 우리는 모두 목숨과 조국을 위해 싸우게 될 것이고, 그 점은 적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번 해전에서 이기면, 각자는 그곳이 어디든 자신의 고향 도시를 보게 될 것시오.

...

이번에는 여러분 가운데 아테나이인들에게 한마디 일러두겠소. 고국의 조선소들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함선들이 남아 있지 않으며, 중무장보병으로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도 없소이다. ...

따라서 여러분과 고국의 동포들의 운명은 이 한 번의 전투에 달려 있소.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야 하오. 그리고 각자, 또 전체로서 마음에 새기시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테나이인에게 기병이자 함선들이며, 남겨진 폴리스이고, 아테나이의 위대한 이름⁸⁾이오 누가 기량과 용기에서 남들을 능가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보여줄 때요. 지금이야말로 그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를 구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시오.”(Thuc. 7.61-64)

투퀴디데스가 소개하고 있는 니키아스의 첫 번째 독전 연설은 아테나이인들을 향한 권고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니키아스는 이 곳에 와 있는 아테나이인들이 그들이 뒤에 남겨놓고 온 바로 폴리스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 폴리스는 지리나 제도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를 넘어선 구성원 자체이다. 폴리스의 구성원들인 데모스가 곧 폴리스라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아테나이 군대는 곧 ‘시칠리아로 옮겨진 아테나이’인 것이다.⁹⁾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의 입을 통해 이 말을 함으로써, 이후 보게 될 전투와 후퇴 장면들을 단순히 일부 아테나이인들이 멀리 떨어진 시칠리아에서 겪는 사건으로 뿐 아니라, 폴리스 아테나이 자체가 겪는 사건으로 그려 보이겠다는 것을 드러낸다.¹⁰⁾ 그리고

8) 아테나이의 위대한 이름에 대한 언급은 페리클레스의 장례추도 연설의 한 대목을 상기시킨다. cf. Thuc. 2.64.3.

9) Connor(1984), 198-199; Rutter, *Thucydides VI and VII*(Duckworth, 1983), 54-55.

바로 이것이 투퀴디데스가 앞선 장면에서 사건들의 진행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이유라 볼 수 있다.

니키아스가 아테나이인들을 향한 연설을 시작하면서 시칠리아에 와 있는 아테나이 군을 ‘개별이자 전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개별이자 전체인 데모스와 폴리스와의 관계는 『역사』, 특히 원정 서사 안에서 데모스-폴리스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뒤이어 나오는 궤립포스의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투퀴디데스가 소개하고 있는 궤립포스의 연설 일부이다.

“아테나이인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헬라스인들이 갖지 못한 거대제국¹¹⁾을 갖고 있건만, 그것도 모자라 먼저 시켈리아¹²⁾를 노예로 삼고, 그것에 성공하면 다음에는 펠로폰네소스와 헬라스의 다른 곳을 노예로 삼으려고 이 나라에 온 것이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들의 해군에 처음으로 대항한 사람들이오. 그리고 여러분은 해전에서 벌써 몇 차례 이겼으니 이번에도 십중팔구 그들에게 이길 것으로 예상되오.

...

그러니 마음이 누그러져서는 안 되며,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떠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오. 그들은 우리를 이기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할 것이오. 그러나 우리가 예상대로 뜻을 이루어 적군을 응징하고 전 시켈리아에 예전부터 누리던 자유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일 것이오. 실패해도 크게 손해 볼 것 없고 성공하면 가장 큰 이익이 생기니, 그런

10) Rood(1998), 183.

11) 거대제국(*archē megiste*)은 ‘가장 큰 지배세력’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투퀴디데스가 아테나이의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pleonexia*)과 패권에 대한 관심을 『역사』 곳곳에서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칠리아 원정을 아테나이의 서술하면서 아테네의 제국적 행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천병희 역 및 다른 번역자들의 ‘거대 제국’이라는 번역어를 수용하였다. cf. Lattimore, Crawley, 그리고 Romilly는 *archē*를 ‘*empire*’로, Hobbes는 ‘*dominion*’, Hornblower는 ‘*power*’로 옮겼다. 투퀴디데스의 *archē*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 중이다.

12) 시켈리아(*Sikelia*)는 시칠리아의 그리스식 표기이다.

모험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라 할 것이요.”(Thuc. 7. 66-68)

우리는 여기서 아테나이인이 아닌, 라케다이모니아 사람 궤립포스를 통해 외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테나이의 모습에 대해 듣게 된다. 그것은 바로 아테나이의 제국적 모습이다.¹³⁾ 궤립포스는 연설을 통해 아테나이인들의 원정의 목적을 강력하게 비난한다. 이미 거대한 제국을 가진 아테나이가 더 큰 제국을 갖기 위해 시칠리아와 다른 곳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디오도로스가 전체 사건의 전개에서 빠져도 상관없다고 여기고 자신의 서술에서 생략했던 투퀴디데스의 이 두 개의 연설은 그만큼 투퀴디데스가 시칠리아 서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바로 시칠리아 원정의 종말이 아테나이인들이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지금의 제국보다 더 거대한 제국을 가지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니키아스의 말처럼 지금 시칠리아에 와 있는 원정대가 곧 아테나이이라면, 마지막 대항구 전투와 후퇴와 원정대의 최후의 순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곧 아테나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13) 이 말은 곧 아테나이가 제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테나이가 제국적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근대적 제국주의의 모습과 같다고 하기는 어렵다. R. H. Winton, “Thucydides 1.97.2; The *archē* of the Athenians’ and the ‘Athenian Empire’”, *Museum Helveticum*(1981)은 델로스 동맹이 형성되었을 때 아테네가 이미 제국의 모습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투퀴디데스의 견해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전간기사를 저술한 투퀴디데스의 『역사』를 들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제국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R. Meiggs, *The Athenian Empire*, (Oxford, 1972); P. J. Rhodes, *The Athenian Empire*(Clarendon, 1985); Harold B. Mattingly, *The Athenian Empire Restored*(Michigan, 1996); Polly Low, *The Athenian Empire*(Edinburgh, 2008).

특히 투퀴디데스와 아테나이의 제국주의에 관한 논의는 Jacqueline de Romilly, *Thucydides and Athenian Imperialism*(Oxford, 1963) 참조.

III. 옮겨진 폴리스 (Thuc. 7.70-71)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된다. 두 역사가는 모두 이 전투 장면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점은 다르다. 우선 디오도로스의 서술부터 살펴보자. 그는 전투 시작 장면부터 쉬라쿠사이군의 승리로 전투가 끝이 날 때까지, 대항구 장면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며 바다 위에서 행해지는 장면들을 개괄하는데 관심이 있다. 특히, 디오도로스의 서술에서는 양 군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된다. 그는 혼란스러운 전투의 분위기까지도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전한다. 디오도로스가 전해주는 대항구에서의 전투 장면은 전술과 지휘관, 그리고 병사들과 함선들이 부딪치고 깨지는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투퀴디데스의 서술도 디오도로스의 서술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투 전의 상황을 서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퀴디데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상태를 보다 더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투퀴디데스의 서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시각적 묘사 방식들이다. 그는 전투 직전의 상황 즉, 대항구에 포진하고 있는 양 군의 배치 상황과 지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특히 대항구의 ‘좁음’을 강조한다.

수많은 함선이 좁은 공간에서(en oligō) 복닥댔다. 이렇게 많은 함선인 좁은 공간에서(en elachistē) 싸운 적은 일찍이 없었다… (Thuc. 7.70.4)

공간이 좁은 까닭에(dia tēn stenochōrian) 때로는 한 함선이 충각으로 다른 함선을 들이받으면서 또 다른 함선의 충각에 들이받히는가 하면, 함선 한 척이 두 척이나 때로는 그 이상의 함선과 얹히고 설키는 바람에 … (Thuc. 7. 70. 6)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투퀴디데스는 ‘좁은’이라는 말을 여러 번 다양한 단어들로, 강도를 높여 반복하고 있다. 좁은 항구 안에 쉬라쿠사이와 아테나이

의 함선들이 가득 들어 차 있고, 해안가에는 양 군의 보병대와 기병대가 포진하고 있다. 군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해안과 성벽 위에서 이 장면을 구경하고 응원하면서 서 있다. 투퀴디데스는 이런 장경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이 전투 장면을 마치 서사시를 듣듯이, 비극을 관람하듯이 읽도록 제시한다. 앞의 바다는 무대가 되고 해안가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과 성벽 위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관객이 된다.¹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전체 장면 즉, 바다 위와 해안가 모두를 포함한 해전장면이 투퀴디데스의 서술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하나의 무대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투퀴디데스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상정하고 이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디오도로스 역시 장경묘사를 이 전투장면 서술에서 빼놓지 않는다. 전투 장면, 그것도 좁은 항구 안에서 행해지는 전투에 대한 묘사는 기본적으로 장경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역시 아테나이인들이 좁은 항구에 갇힌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반면 쉬라쿠사이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더 이상 위협에 놓여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시합(agōn)은 항구의 입구에 방책을 둘러 막음으로써, 적군과 적진을 모두 장악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Diod. 13.14.1.

디오도로스의 이 묘사는 투퀴디데스가 사용한 비극 상연장 같은 장면 구조를 디오도로스는 경기장 안에서의 시합(agōn) 이미지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그가 바로 투퀴디데스의 장면 서술을 읽었다는 증거로 작용한다.¹⁵⁾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이 장경 안에서 지형적으로 좁은 공간을 묘사하는데

14) Hornblower(2010), 20-21, “Teichoskopia” ; Hom. II. 3.171-244. cf. Diod. 13.14.5

15) 디오도로스의 장면 이해에 대한 필자의 오류를 지적해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그치지 않고, ‘좁음’과 ‘넓음’의 반전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투퀴디데스는 ‘좁은 공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를 의도한다. 먼저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는 장경을 강조한다. 그는 아테나이를 비극적 주인공으로 하는 비극작품을 상연하듯이 이 전투 장면을 하나의 좁은 지형과 성벽위에서 장면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둘째로, 아테나이 해군이 자신들의 함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연관된다. 좁은 공간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었던, 자신들의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함대를 포기하고, 바다 위에서 육지전과 같은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탐욕으로 부풀어 오른 아테나이,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던 아테나이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더 넓은 곳을 차지하고자 했고, 그래서 더 먼 곳, 시칠리아로 원정을 왔다.¹⁶⁾ 그러나 더 넓은 곳을 향해 가려던 그들은 오히려 가장 좁은 곳으로 몰아진다. 바로 이 좁은 공간에 대한 강조는, 제어할 수 없는 탐욕에 이끌린 아테나이의 비극적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자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장경 묘사로 투퀴디데스는 ‘대항구의 아테나이 해군’ 곧 ‘옮겨진 폴리스’의 모습을 전투 장면에 담아 독자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준다. 당시 삼단 노선들에 ‘패권(hēgemonia), 가장 강력한(kratiste), 자유(eleutheria), 민주주의(dēmokratia), 자유로운 연설(parrhēsia), 정의(dikaiosynē)’와 같은 이름들이 붙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은 더 명확해진다.¹⁷⁾ 대항구에 있었던 배들의 이름이 모두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투퀴디데스가 보여주하고자 하는 아테나이의

16) 좁은 대항구 장면은, 아테나이의 제국적 욕망과 ‘옮겨진 폴리스’ 두 측면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옮겨진 폴리스만 강조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시칠리아 원정에서 드러난 옮겨진 폴리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아테나이의 제국주의적 욕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후속연구를 통해 밝히겠다.

17) V. Hanson(2009), 253.

초상을 보게 된다. 아테나이가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그리고 또 실제 바랐던 여러 욕망과 희망들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왔던 이곳에서, 더 강력한 제국을 위해 벌인 이 전투에서 결국 깨져버린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는 바로 전투 중 소리의 묘사에서 나타난다. 디오도로스도 투퀴디데스도 소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 소리들을 단순한 묘사로 사용한 디오도로스와는 달리 투퀴디데스는 이 소리들을 통해 비극적 장면을 만들어낸다. 특히 투퀴디데스는 해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람객들의 시선까지 독자들의 시선 속에 들어오게 만든다. 아테나이 군의 보병 부대도, 쉬라쿠사이 군의 보병부대도 모두 이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서도 투퀴디데스는 이를 지켜보는 이들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해안에 길게 늘어서 있는 보병 부대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상황을 보고, 다른 감정들을 느끼며 온갖 비탄 혹은 격려의 소리를 지른다.¹⁸⁾ 투퀴디데스는 전세를 알기 어려운 이 해전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들과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온갖 감정들과 소리들을 짧은 문장들을 연속적으로 접속사 없이 나열함으로(asyndeton) 그 급박함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투퀴디데스는 비명 소리를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비극적 효과를 극대화한다.¹⁹⁾

그들(해안에서 지켜보는 자들)은 전투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계속되자 마음이 이리저리 동요함에 따라 몸도 이리저리 요동치는 가운데 극심한 고뇌를 견뎌내야 했으니, 금세라도 구원받거나 파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는 동안에는 아테나이인들의 대열에서 신음소리, 응원소리, “우리가 이기고 있어”, “우리가 지고 있어”, 그 밖에 큰 위기에 처한 대군이 자기도 모르게 질러대는 온갖 고향 소리가 들려 왔다. 함선에 타고 있는 자들의 감정도 대동소이

18) Thuc. 71.1-5.

19) 이 장면은 아이스퀼로스의 『아가멤논』에서의 아가멤논의 비명, 『페르시아』에서의 크세르크세스의 흐느낌과 쉽게 연결된다. cf. de Romilly(1967), 93.

했다.(Thuc. 7.71.3-5)

아테나이 군에게는 그들이 예상하고 대비했던 전술들과 전략도, 지휘관들의 지휘도 더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보이던, 전체 군대 앞에서, 그리고 함선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군사들을 격려하던 지휘관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전술도, 전략도, 지휘관도 사라져버린 이 좁은 공간에서 강조되는 것은 오직 ‘두려움과 탄식, 그리고 요란한 소음들뿐이다.’²⁰⁾ 바다 위에서의 백병전과 자기편의 지휘관들의 명령과 격려조차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요란한 소음들로 가득한 전투 장면에 이어 곧 초점은 해안에서 지켜보는 전투 바깥의 사람들에게로 옮겨간다.²¹⁾

투퀴디데스는 이렇게 전투 장면에 무대 공간과 같은 시각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투장면을 마치 비극을 보듯이 읽는 효과를 만들어주었다. 디오도로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런 비극적 요소들을 통해서 투퀴디데스가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²²⁾ 그것은 바로 옮겨진 폴리스, 즉 아테나이 민주정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를 결정하는, 그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데모스가 지배하는 아테나이 민주정체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소음뿐이다. 그리고 보병과 구경꾼들이 이 장면을 해안과 언덕 위의 성채에서 바라본다. 아테나이 군도, 쉬라쿠사이 군도, 그리고 후대의 독자들 역시 동일한 장면, 곧 아테나이의 실체를 보고 있다.²³⁾

20) Thuc. 7.70.5-6.

21) Thuc. 7.71.

22) 시칠리아 서사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비극적 패턴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두희,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서양고전학연구』 37(2009): 59-64. 참조.

23) 소리만이 강조된 아테나이 군의 모습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비판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 아이소포스의 우화들 중 개구리와 관련한 것들 역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IV. ‘머리 없는 폴리스’ (Thuc. 7. 72-74)²⁴⁾

전투 끝에 결국 쉬라쿠사이 군이 승리하고 아테나이인들은 그들에게 쫓겨 육지 쪽으로 몰린다. 아테나이인들의 패퇴 장면에 있어서도 디오도로스와 투퀴디데스의 서술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디오도로스는 승리한 쉬라쿠사이 군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아테나이 군이 패퇴하자, 쉬라쿠사이인들이 곧바로 죽은 자신들의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으로 이 전투 장면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아테나이는 60척의 함선을 잃고, 쉬라쿠사이는 8척의 함선이 완전히 부서지고 16척은 크게 손상되었다’고 결론짓는다.²⁵⁾ 이와는 대조적으로, 투퀴디데스는 패퇴과정에서의 아테나이 군의 행동 뿐 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 서술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아테나이 군 중 남은 자신의 함선 혹은 남은 방벽을 지키려 달려간 자들은 소수였고, 나머지 대다수는 살아남을 생각을 하며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투퀴디데스는 대비시켜 보여준다.²⁶⁾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24) 한 심사자는 ‘머리 없는 폴리스’의 이미지가 통제불능의 데모스와 아테나이 폴리스에 대한 은유라는 필자의 논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퇴각 과정에서 데모스테네스와 니키아스가 여전히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폴리스라고 보기 어렵고, 투퀴디데스가 보여주는 아테나이의 문제는 데모스가 지도자들을 거부하는 ‘머리 없음’의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휘브리스한 지도자에 휘둘린 사태에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예리한 지적에 감사한다. 그러나 이 장면뿐만 아니라, 지면 관계상 생략한 시칠리아 원정 서사를 준비하기 위해 행해진 6권 초반부의 연설들과 이후 다른 부분들에서도, 페리클레스 사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없는 상황에서 데모스의 생각과 결정들이 곧 아테나이의 생각과 결정들이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휘브리스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휘브리스한 데모스, 그리고 휘브리스한 아테나이 자체 모두가 아테나이의 문제라고 투퀴디데스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투퀴디데스의 데모스와 데모크라티아와의 연관성에 대한 다른 논문을 통해 상세히 밝히겠다.

25) Diod. 17.5.

전투 장면을 통해 옮겨진 폴리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투퀴디데스는 이제 데모스의 실상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 앞에서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함대를 버림으로 폴리스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폴리스를 버리려 한다.²⁷⁾ 곧이어, 독자들은 아테나이 군의 퇴각과정에서 선원들이 함선에 오르기를 거부하고 결국 모두 함께 함선들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²⁸⁾ 아테나이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은 이미 쉬라쿠사이인들은 자신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회향하여 승전비를 세웠지만, 아테나이인들은 자신의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투퀴디데스의 설명으로 강조된다.

이렇게 아테나이의 패배로 전투가 끝나고 아테나이인들은 후퇴 작전을 논의한다. 디오도로스와 투퀴디데스는 이 후퇴 작전에 대해 서로 다른 서술을 하고 있다. 두 역사가의 서술을 비교해 보자.

아테나이인들은 그들의 장군들의 막사로 무리를 지어 모여들고, 장군들에게 배들이 아닌 그들의 개개인의 안전을 생각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데모스테네스는 장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즉시 삼단노선에 중무장보병들을 태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상대를 예상치 못하게 공격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니키아스는 그들이 선단을 버리고 그들과 연합되어 있던 도시 내부를 통과해서 후퇴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장군들이 동의했다. 그들은 그래서 몇몇 배들에 짐을 싣고, 후퇴할 준비를 했다.(Diod. 13. 18.1-2)

그러나 데모스테네스가 니키아스를 찾아가 남은 함선들에 다시 대원들을 태운 다음 새벽에 최선을 다해 출구를 열어보자고 제안하며,

26) Thuc. 7.71.6.

27) 그러나 아테나이인들이 버리려 하는 함대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아테나이가 아테나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제해권 때문이었다. 그런 아테나이가 함선들, 곧 함대를 버리는 것은, 그들의 확장시키고자 하는 제국의 필요조건이지만, 결국 그들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이 이 모습에서 드러난다.

28) Thuc. 7.73.1.

사용할 수 있는 함선이 적군보다는 아군에게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니키아스도 이 제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장군들이 함선들에 선원을 태우려 하자 선원이 승선을 거부했으니, 지난번 패배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 싸워보았자 승산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전부는 이제 육로로 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Thuc. 7.72.3-73.1)

위의 인용을 보면, 두 역사가 모두 데모스테네스가 제안한 해로를 통한 후퇴가 아닌, 육로로의 후퇴결정을 알려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결정의 계기에 대한 설명에는 이견을 보인다. 디오도로스는 해로를 통한 후퇴를 주장하는 데모스테네스에게 니키아스가 반대하고, 나머지 장군들이 니키아스의 견해에 동의해서 이들이 선단을 버리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반면, 투퀴디데스는 데모스테네스와 니키아스 모두 함선들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으나 선원들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육로로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디오도로스는 아테나이 군의 퇴로가 막히고 원정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니키아스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후퇴 실패의 원인을 니키아스, 혹은 지휘관들의 불화에 두지 않는다. 장군들의 제안은 선원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선원들의 주장에 따라 아테나이인들은 육로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해로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아테나이의 국력의 근원인 함대와 해상력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데모스테네스가 끝까지 해로를 뚫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가 데모스테네스의 제안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으나 선원들이 이를 거부한다고 밝힘으로써, 아테나이의 힘을 가장 과신했던 바로 아테나이 자신, 즉 아테나이의 데모스가 스스로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²⁹⁾ 투퀴디데스는 데모스테네스와 니키아스로 대변되는 공동체적 지혜는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테나이의 행보가 지휘관들의 판단보다는 선원들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29) cf. 시칠리아 원정을 결정한 민회 직후의 민중들의 반응(Thuc. 6.7-24)

결정되는 것을 보인다.³⁰⁾ 지금 이 폴리스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머리 없는 데모스인 것이다.

아테나이가 후퇴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편, 이들의 계획을 알아챈 쉬라쿠사이 군은 이들의 퇴로를 막을 계획을 세운다. 두 역사가 모두 쉬라쿠사인 헤르모크라테스가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다고 밝히며, 퇴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헤르모크라테스 ‘개인’에서부터 나온 생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테나이 군의 퇴각 결정 과정에서 아테나이 선원들의 해로를 통한 후퇴 거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디오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쉬라쿠사이 군의 움직임을 서술한다.

아테나이인들이 한밤에 빠져나가려는 것이 명확해지자 헤르모크라테스는 쉬라쿠사이인들에게 어둠을 틈타 전군을 이끌고 나가, 그들에 앞서 모든 길을 장악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장군들은 이 제안을 반대했는데, 이미 많은 군사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들 모두가 전투 이후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르모크라테스는 기병대를 파견해서 길과 가장 중요한 위치들을 지키도록 했다.(Diod. 13. 18.3-4)

그는 군사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군들이 이 작전을 반대했다고 단정적으로 밝힌다.³¹⁾ 투퀴디데스의 설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투퀴디데스는 디오도로스의 설명처럼 사실만을 서술하지 않는다. 투퀴디데스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쉬라쿠사이인 헤르모크라테스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만약 그런 대군이 육로로 탈주하여 시켈리아의 어느 한군데에 등지를 틀고

30) 이 장면에서의 데모스테네스의 모습은 시칠리아 전쟁 서사 초반부(esp. Thuc. 6.7-24)의 니키아스의 모습과 상당 부분 겹친다. 물론 니키아스의 신중함과 소심함과 데모스테네스의 추진력은 7권 이후에서 계속 충돌을 빚기는 하지만, 데모스테네스의 판단과 생각은 6권에서 니키아스의 연설에서 볼 수 있었던 상식과 공동 체적 지혜(public wisdom)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31) 디오도로스는 이 상황을 직설법으로 서술한다.

는 또다시 전쟁을 걸어온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국자들을 찾아가 아테나이인들이 밤에 도주하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쉬라쿠사이인들과 그들의 동맹군이 지금 모두 출동하여 도로들을 봉쇄하고 고갯길들을 먼저 점령하여 수비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자들도 그 의견에 동조하며 그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힘겨운 해전을 치르고 나서 휴식을 즐기고 있고 더욱이 그날은 축제일인지라 그런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축제일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들더러 무기를 들고 지금 출동하라고 명령해도 결코 복종하지 않을 듯했다.(Thuc. 7.73.1-2)

쉬라쿠사이의 상황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서술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가정적인 상황으로 나와 있는 당국자들의 병사들에 대한 생각이다. 그는 가정에 의거해서 이 작전에 예상되는 병사들의 반응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이 대목이 흥미로운 것은, 투퀴디데스가 아테나이 병사들이 지휘관들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인해 아테나이 군이 그들의 재앙이 될 육로로의 후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직후에 나온 서술이기 때문이다. 투퀴디데스는 패배한 아테나이 병사들만큼이나, 승리한 쉬라쿠사이 병사들도 다루기 힘든, 그리고 실제 군대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³²⁾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앞의 데모스가 이끄는 폴리스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나 앞선 아테나이의 상황과 지금의 쉬라쿠사이의 상황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헤르모크라테스의 존재이다. 그는 병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신은 결정권 및 지휘권이 없었기에, 개인적으로 아테나이를 막을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그는 아테나이 군의 퇴로를 막는데 성공한다. 투퀴디데스의 설명처럼 장군들의 말을 따를 것 같지 않아서였든, 혹은 디오도로스의 설명처럼 바로 야간작전을 펼칠 상황이 아니어서였든, 결국 헤르모크라테스의 제안은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쉬라쿠사이인 헤르모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그는 ‘그들(데모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지

32) Hornblower(2010), 450. n. 73.2.

만’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묘안을 생각해내고, 속임수를 이용해서 아테나이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디오도로스 역시, 군사들이 지쳐있어 장군들이 그의 제안을 반대하자, 헤르모크라테스가 기병대를 보내 가장 중요한 위치들을 지키도록 했다고 보고한다.

쉬라쿠사인인 헤르모크라테스는 이미 투퀴디데스 『역사』 6권에 소개되었다. 아테나이 원정대가 자신들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회의에서 헤르모크라테스는 아테나이인들의 침략에 대비할 것은 경고하는 연설을 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는 이번에도 한발 앞서 사태를 파악하고 움직인다. 궤립포스와 헤르모크라테스는 계속된 의견충돌을 빚던 아테나이의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미 통제가 되지 않는, 지휘관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선원들과, 그런 상황에서 결국 전술을 바꾸는, 즉 어떤 의미에서 병사들에게 휘둘리는 지휘관들의 모습은, 아테나이 민주정체의 실체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투퀴디데스는 아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휘관들이 아닌 ‘아테나이인들’이었다고 강조한다. 반면 헤르모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동조자 몇 명과 함께 아테나이인들을 속여서 그들이 야간 후퇴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시간을 번다.³³⁾

이렇게 투퀴디데스는 엘리트가 제 기능을 하는 스파르타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테나이 군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엘리트와 데모스의 관계를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서 민주정체의 실체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아테나이 민주정체의 허상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양 군의 병사들, 곧 데모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헤르모크라테스와 개인의 관계는, 지휘관들이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그들을 이끄는 지혜와 통치의 분별력이

33) 투퀴디데스는 이 사건을 끊임없는 반전과 서스펜스를 이용해 서술하고 있다. 아테나이의 모습은 곧 쉬라쿠사이의 모습이 되고, 쉬라쿠사이의 모습은 또 다른 어떤 폴리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라진 아테나이의 모습을 더욱 강조한다. 개인으로서 공동체적 지혜를 발휘하는 쉬라쿠사이인 헤르모크라테스는 지휘관들이 힘이 없어지고, 그들로 대변되는 공동의 지혜와, 선견지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테나이의 모습을 더 부각시킨다. 머리 없는 데모스가 부풀어 오른 자신의 욕망을 좇아 왔던 시칠리아 원정의 끝은 바로 이어서 서술되는 퇴각 과정과 그 최후의 묘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V. 폴리스의 몰락 (Thuc. 7.75-85)

헤르모크라테스의 계략에 넘어간 아테나이 군은 해전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에서야 군대를 출발시킨다. 디오도로스의 서사는 헤르모크라테스가 아테나이 군을 속이는 장면에서 바로 삼 일 후, 퇴각과 추격 과정을 간단하게 다룬다. 이것은 쉬라쿠사이 대항구에서의 전투 장면을 그가 투퀴디데스보다 더 길게,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에 반해, 투퀴디데스는 퇴각을 목전에 둔 아테나이인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클로즈업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는 퇴각군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면서 각각의 대원들이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자책감과 같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들까지도 자세하게 묘사한다.

어느 모로 보나 처참한 광경이었다. 함선을 모두 잃고 퇴각하는 중이었고, 큰 포부를 품고 왔건만 지금은 자신들도 아테나이 시도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군영을 떠나자니 눈에 보이는 것은 슬픈 장면이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슬픈 생각뿐이었다.(Thuc. 7.75.2)

너 나 없이 치욕을 당하고 다 같이 수난을 당하면 조금은 위로가 되는 법이건만, 그때는 무엇보다도 처음의 찬란함과 자긍심이 비참한 굴욕으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다. 헬라스의 군대가 이런 반전을 경험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들은 남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 왔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노예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들은 파이안을 부르고 무운을 비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출항했지만 지금은 그와 정반대되는 불길한 전조의 말을 들으며 귀로에 올랐다. 배를 타는 대신 걸어서, 함대 대신 중무장 보병을 믿으며, 하지만 그들에게 임박한 엄청난 위험에 견주면 이 모든 것도 견딜 만해 보였다.(Thuc. 7.75.6)

6권 초반, 시칠리아 원정 서사 서두에 소개된 원정대의 화려한 출항 장면이 전도된 이 퇴각 장면은 아테나이 군의 처참함을 더 부각한다. 이어 투퀴디데스는 낙담하고 의욕이 꺾인 군대를 격려하려는 니키아스의 연설을 소개한다.³⁴⁾ 니키아스는 신들에 대한 확신, 즉 자신의 경건함을 보증 삼아 이후의 사태를 낙관해 보려고, 또 병사들을 위로하려고 애쓴다.³⁵⁾ 그는 자신들과 같이 다른 이들도 이웃을 공격했지만, 그들은 사람이면 저지를 법한 짓을 저질렀고, 또 그로 인해 사람이면 견뎌낼 수 있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아테나이군은 이미 견뎌낼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했고, 지금까지의 불운들만으로도 신들은 아테나이 군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곧 다시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병사들을 격려한다. 그리고 투퀴디데스는 다시 한 번 니키아스의 입을 통해 이곳에 와 있는 그들 자신이 곧 아테나이 자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오, 얼마나 많은 훌륭한 중무장 보병이 여러분의 대열 속에서 함께 행군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정착하든 여러분 자신이 이미 도시이며, 여러분이 일단 정착하면 시켈리아의 어느 도시도 쉽게 여러분의 공격에 맞서거나 여러분을 쫓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34) 데모스테네스도 비슷한 말로 자신의 부대를 격려했다고 언급되지만, 퇴각을 결정한 이후의 서술은 니키아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35) 투퀴디데스가 역사에서의 인간의 의지와 퇴계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니키아스의 연설들에서 잘 드러난다. 니키아스가 자신의 경건함이 구원을 위한 보증이 된다고 믿었다면, 쉬라쿠사이에서의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은 인간의 의지와 실수, 그리고 사고들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cf. Hornblower(2010), 454.

...

간단히 말해 전사들이여, 지금은 용감한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해두시오. 가까이에는 겁쟁이가 달아나 숨을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오. 또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적군에게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가운데 비 아테나이인들은 마음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아테나이인들은 추락한 아테나이의 위대한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리라는 점도 명심해두시오. 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지, 사람이 없는 빈 성벽이나 함선이 아니기 때문이다.(Thuc. 7.77.4-7)

함선들을 버리고 사실상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잃은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들 자신이 곧 아테나이이며, 그들 안에 아테나이의 위대한 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니키아스가 말하고 있는 ‘아테나이의 군대, 곧 데모스가 폴리스’라는 생각은 물론 투퀴디데스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³⁶⁾ 투퀴디데스는 이미 한 세기 전부터 등장한 이 생각을 폴리스 아테나이가 당한 비극 속에서 실체화한다. 쉬라쿠사이에서의 마지막 전투 직전과, 후퇴 직전에 니키아스의 입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된 옮겨진 폴리스, 즉 사람들 곧 데모스가 폴리스라는 사실은, 지금 독자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닌, 아테나이 민주정체의 초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아테나이군의 본격적인 후퇴가 시작된다. 디오도로스는 단 몇 줄로, 카타네로 후퇴하려는 아테나이 군을 쉬라쿠사이 군이 방해해서 헬로리누스 평야로 돌아가도록 유도했으며, 곧 앓시나로스 강에서 아테나이 군을 전멸시켰다고 간단하게 퇴각 과정의 개요만을 밝힌다.³⁷⁾ 반면, 투퀴디데스는 이 후퇴 과정을 매우 길게 서술하면서 중간 중간 아테나이인들의 두려움을

36) Alcaeus fr. 23, Sophocles 『오이디푸스 왕』, 56 “ὥς οὐδέν ἐστιν οὔτε πύργος οὔτε ναῦς ἔρημος ἀνδρῶν μὴ ξυνοικούντων ἔσθ(성벽도 배도 텅 비어 그 안에 같이 살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cf. Connor(1987), 202.

37) 디오도로스가 이 퇴각 과정에 대해 생략한 것에 대한 논의는 Green(1970), 315-343, Kagan(1981), 339-353 참조할 것.

표현하기 위해 상황의 개연성을 강조한다.

그때 마침 가을 초입에 흔히 그러하듯, 우렛소리 요란한 가운데 비가 쏟아지자 아테나이인들은 더욱 사기가 꺾였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자신들의 파멸을 암시하는 전조로 여겼던 것이다.(Thuc. 7.79.3)

그들은 쉬라쿠사인들이 지키는 쪽과는 반대 방향에 있는 바닷가로 인솔하기로 결정했다. [...] 그래서 그들은 불을 많이 피우고 밤에 출발했다. 적군이 가까이 있을 때 군대, 특히 대군이 밤에 적지를 행군하면 흔히 불안해서 겁에 질리듯 아테나이군도 공황 상태에 빠졌다.(Thuc. 80.1-3)

투퀴디데스는 앗시나로스 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그 긴 퇴각과정을 눈으로 따라가는 독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앗시나로스 강가에 모여 있는 아테나이 퇴각군들과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는 쉬라쿠사이 군이다. 긴 전투와 퇴각으로 인해 지친 아테나이 병사들은 적군이 뒤쫓아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참을 수 없어 너나 할 것 없이 강물에 뛰어든다. 추격해오는 적군과 서로 강을 건너려고 싸우는 군대의 모습과 결국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자신의 창에 찔려 목숨을 잃는 이들의 비참한 광경의 비극적 절정은 전승담 대신 전패의 증거물로 남은, 강바닥에 켜켜이 쌓인 수많은 시신들의 모습으로 독자들의 눈앞에 드러난다.³⁸⁾ 투퀴디데스가 독자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는 앗시나로스 강가에서의 아테나이 군의 대참사는 바로 옮겨진 폴리스, 몰락한 아테나이의 처절함이다.

38) Thuc. 7.84

VI. 아테나이의 초상

지금까지 두 역사가가 쉬라쿠사이의 마지막 전투와 아테나이 원정대의 최후를 서술하면서 무엇에 중심을 두어 서술했는지를 살폈다. 디오도로스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는 사건 자체와 사건들이 불러일으킨 결과에 더 관심을 두었다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투퀴디데스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건들을 행하는 사람들과 개개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전체, 즉 데모스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그들이 대처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쉬라쿠사이 대항구에서의 전투 장면과, 원정대가 다른 막다른 곳 바로 앗시나로스 강변에서의 장면이었다. 투퀴디데스는 좁은 공간에 갇힌, 막다른 곳에 몰린 아테나이 군의 모습을 마치 비극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또한 좁은 공간과 소리를 강조함으로써 비극적 주인공들이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해변가와 성벽위에서 전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안에 잡아놓았다.

투퀴디데스가 이렇게 아테나이인들의 두려움과 비탄, 온갖 외침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듣고 보게 한 것은 이 사건의 서술에 비극적 효과를 주기 위한 표현장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서술 방식은 단지 비극성만을 극대화하고 혹은 수사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된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앞의 분석을 따르면, 이런 장면 서술을 통해 그가 독자에게 그려준 것은 아테나이의 초상이었다. 이는 다음에서 확인되었다. 첫째는 장면 구성에서 “옹겨진 폴리스”에 대한 강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쉬라쿠사이 대항구 앞에 있는 아테나이 군이 바로 옹겨진 폴리스 자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니키아스의 두 연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두 번째는, 대항구의 ‘좁음’이 장면 구성에서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바다를 통해 더 넓은 곳으로 뻗어 나가려고 했던 제국적 욕망을 가진 아테나이가 막다른 좁은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능력을 전혀 펼칠 수 없었다는 점도 역설적으로

강조된다. 이런 아테나이의 군의 모습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아테나이 데모스의 부푼 욕망, 그러나 이를 성취하고 통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모스의 제국적 욕망을 선명하게 그려준다. 이는 아테나이 민주정체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머리를 잃은 데모스의 모습이다. 이는 특히 퇴각 과정의 서술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는 아테나이 군의 모습과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지휘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극적으로 강조된다. 이 안에서 페리클레스와 같은 지휘관, 머리를 잃은 데모스의 모습이 쉬라쿠사이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 부각된다. 마지막은 민주정체의 몰락이다. 투퀴디데스는 앗시나로스 강가에서의 최후 장면을 그리면서 폴리스 아테나이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투퀴디데스는 이 붕괴의 결정적인 책임을 다름 아닌 데모스에게 묻는다. 이는 니키아스의 죽음에 대해 투퀴디데스 내리는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³⁹⁾ 투퀴디데스는 간결한 몇 문장으로 니키아스의 아레테를 칭송하며 그의 죽음이 그의 탁월함에 비추어 볼 때에 비참한 것으로 평가하며, 시칠리아 원정의 패배가 니키아스의 개인 탓이 아니라고 일갈한다. 시칠리아 원정의 패배는 지휘관 개인의 잘못된 전략과 전술 때문이 아닌, 페리클레스와 같이 강력한 지도자에 부재한, 곧 머리 없는 데모스 때문이었다. 물론 지휘관들의 실수와 판단 착오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은 상황 조건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핵심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조건들이 이미 지휘관들이 제어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이미 넘어선 것들이라는 데에 놓여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신한 채 제국적 욕망에 휩쓸려 원정을 감행한 아테나이 군, 즉 데모스는 지휘관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위치한 공간 조건이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항구라는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면 구성을 통해서 투퀴디데스는 통제 불능의 아테나이 민주정체의 모습을, 즉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아테나이

39) 니키아스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는 Kagan(2009) Ch.9을 참조할 것. cf. Connor(1984) 205; Gomme-Dover, HCT Vol III, 463.

의 초상을 보도록 만든다. 이런 모습은 디오도로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장면 구성을 통해서 투퀴디데스는 아테나이 민주정체에 대한 자신의 판단, 즉 실망어린 시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시칠리아 원정 장면만으로 『역사』 전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역사』 전체 구성이 시칠리아 원정을 중심으로 짜였고, 이전의 중요한 사건들이 어휘적 반복(verbal echoes)으로 시칠리아 원정 서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사건들의 반전과 역할 전도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시칠리아 원정은 『역사』 전체의 소위 “미니어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칠리아 원정 서사는, 특히 항구에서의 마지막 전투는 『역사』의 백미이고, 투퀴디데스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며, 아테나이 민주정체를 마치 머리 없는 몸에 불과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아테네인 투퀴디데스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종류의 언명도 남기지 않음에도 항구 전투 장면 묘사 자체가 실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전투장면은 일종의 침묵의 선언(argumentum tacitum)이라 하겠다. 이 선언은 동료 시민들에게, 자신의 조국 폴리스 아테네에게, 여기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전하고자 했던 소리 없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Alberti, I. B.(2000), *Thucydides Historiae*, Libri VI-VIII Roma.

Stuart Jones, H. and Powell, J. E(1942), *Thucydides Historiae*, II, Oxford.

Vogel, F.(1890), *Diodori Bibliotheca Historica*, II, Leipzig.

Thucydides, 『역사』, 천병희 역(2012), 숲.

Diodorus Siculus, *The Persian Wars to the Fall of Athens; Books 11-14.34 (480-401 BCE)*, Peter Green trans.(2010), Texas.

(2) 2차 문헌

이두희(2009),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서양고전학연구』 37집, 47-76.

Allison, J.(1997), “Homeric Allusions at the Close of Thucydides’ Sicilian Narrativ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8(2): 499-515.

Avery, H. C.(1973), “Themes in Thucydides’ Account of the Sicilian Expedition”, *Hermes* 109: 1-13.

Lallot, Jean et al. eds.(2011), *The Historical Present in Thucydides: Semantics and Narrative Function*, Brill.

Cogan, M.(1981), *The Human Thing: The Speeches and Principles of Thucydides’ History*, Chicago.

Connor, W. R.(1977), “A Post-Modernist Thucydides?”, *Classical Journal* 72: 289-98.
_____ (1984), *Thucydides*, Princeton.

Dover, K. J.(1983), “Thucydides ‘as History’ and ‘as Literature’.” *History and Theory* 22: 54-53.

Gomme, A. W. and Dover, K. J.(1970), *A Historical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IV, Oxford.

Hornblower, S.(2010), *A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3, Cambridge.

Finley, J. H.(1967), “The Unity of Thucydides’ History”, *Three Essays on Thucydides*, Cambridge.

- Green, Peter(1970), *Armada from Athens*, Doubleday.
- Hanson, Victor(2006), *A War Like No Other: How the Athenians and Spartans Fought the Peloponnesian War*, Random House.
- Hunter, V.(1973), *Thucydides the Artful Reporter*, Toronto.
- Kagan, Donald(1981), *The Peace of Nicias And the Sicilian Exp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agan, D.(2009), *Thucydides: The Reinvention of History*, Viking.
- Kirby, John T.(1983), "Narrative Structure and Technique in Thucydides VI-VII", *Classical Antiquity*, 2.2: 185.
- Macleod, C. W.(1983), "Thucydides and Tragedy." in *Collected essays*, Oxford.
- Morrison, J. S. and Coates, J. H.(1986), *The Athenian Trireme*, Cambridge.
- Ober, J.(1989),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Rhetoric, Ideology, and the Power of the People*, Princeton.
- de Romilly, J.(1963), *Thucydides and Athenian Imperialism*, Oxford.
- _____ (1956), *Histoire et Raison chez Thucydide*, Paris.
- Rood, Tim(1994), *Thucydides: Narrative and Explanation*, Oxford.
- Rawling, H. R.(1981), *The Structure of Thucydides' History*, Princeton.
- Rutter, N. K.(1989), *Thucydides VI and VII*, Bristol.
- Stahl, H.-P.(1973), "Speeches and Course of Events in Books Six and Seven of Thucydides.", in P. Stadter ed., *The Speeches in Thucydides: A Collection of Original Studies with a Bibliograph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inton, R. H.(1981), "Thucydides 1.97.2: The *archē* of the Athenians' and the 'Athenian Empire'", *Museum Helveticum* 38: 147-152.
- Zadorojnyi, A. V.(1998), "Thucydides' Nicias and Homer's Agamemnon." *Classical Quarterly* 48: 298-313.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ucydides' abstract and symbolical style presented in the Sicilian Expedition Narrative by contrasting Diodorus Siculus' *Bibilothea Historica*, which deals with the same historical event, the Peloponnesian War. First of all, unlike Diodorus' focus on historical facts, Thucydides does not limit his work in transferring historical facts of the Sicilian Expedition. For example, Diodorus uses Ephorus as his main historical source and describes the Sicilian Expedition in a brief summary. In contrast, Thucydides tries to portrait Athens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 dramatic scenery and the speeches woven in the narrative of the historical events. When presenting Nicias' speech, Thucydides declares that 'Athenian Troops in Sicily is Athens herself.' Furthermore, Thucydides suggests a notion of "a displaced polis" when he describes the battle scene at the Syracusan harbor. First, he depicts Athens as a polis with her failed imperial ambition, which results in locking Athens in a narrow region. Second, the final battle scene is presented as an image of Athenian *dēmos*, who has 'lost their head. Last, the scene in the Assinarus river displays the downfall of Athens in a prolepsis. Finally, Thucydides criticizes Athens' chaotic *dēmokratia* not by direct statements but through the tragic narrative structure of Sicilian Expedition.

【Keywords】 Sicilian expedition, Athenai, *dēmos*, *dēmokratia*, tragic narrative structure

논문 투고일: 2014. 3. 14

심사 완료일: 2014. 4. 07

게재 확정일: 2014. 4. 07